

환경

희귀식물 개화·결실 매년 어떻게 변화하나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다도해해상공원, 지리산국립공원 등 국립공원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해 자연생태의 계절적 변화를 관찰하고 있다.

타이머를 이용해 일정간격으로 사진을 촬영하는 '식물계절 관찰 네트워크(Phenological Eyes Network)' 시스템을 적용해 희귀종의 개화, 만개 시기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또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사구로 유명한 우이도에도 2대의 관찰 카메라를 설치했다.

24일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공단 소속 국립공원연구원은 2011년

다도해·지리산 등 국립공원에 카메라 52대 설치
우이도 사구·팽이갈매기 이동 등 생태계 변화 관찰

부터 지리산국립공원의 히어리(멸종위기종 2급), 덕유산국립공원의 광릉요강꽃(멸종위기종 1급) 등의 자생지에 8~10대의 카메라를 설치, 개화 및 결실시기가 연도별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관찰하고 있다.

히어리는 올해 1일 꽃이 피기 시작해 8일 만개했으며, 광릉요강꽃은 지난해 5월10일경부터 꽃이 피기 시작,

20일경 만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릉요강꽃은 우리나라에서 600여 개체에 불과한데 이 같은 조사가 한 국 자생식물 연구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국립공원연구원은 기대하고 있다.

연구원은 내장산국립공원의 단풍절정 시기도 이 같은 시스템을 통해 관찰, 내장산 단풍이 지난해 10월29

일에서 11월5일까지 절정을 보인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덧붙였다.

국립공원연구원은 사구로 알려진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에도 모래의 이동을 파악하기 위해 2대의 카메라를 설치했다.

사적 양단에 돌출한 2개의 반도가 소의 귀 모양과 비슷해 우이도라고

불리는 이 섬은 21km에 이르는 해안선에 넓게 분포한 모래사장으로 유명하며, 연구원은 이 카메라로 사구 모래량이 계절별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도서지역에서 집단 번식하는 팽이갈매기의 이동시기가 어떠한지 등을 관찰하고 있다.

국립공원연구원 권혁균 원장은 "카메라 52대가 설치된 이번 시스템을 통한 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면 국립공원 등의 생태계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기후변화와 생태계 변화의 상관성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적 양단에 돌출한 2개의 반도가 소의 귀 모양과 비슷해 우이도라고

전남, 전국 첫 태양광 에너지농장 인기

마을회관·창고 등 옥상에 설치 전력생산·판매

전남도가 올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에너지농장사업이 농어업인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사업 첫 해 에너지농장사업은 FTA 협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농가들에게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도입한 제도다.

이는 농어촌 지역의 마을회관·축사·창고 등의 건축물 옥상이나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 전력을 생산·판매하는 것으로, 30kw(330.57㎡/시간당)의 전력을 생산할 경우 매달 150여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

이 중 융자금 상환, 관리비 등을 공제하면 약 70여만원의 순수익을 올릴 수 있어 전남도는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농 소득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사업 첫 해까지 122곳으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 1차로 시설물 설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30곳을 사업적격자로 선정했다. 현재 현지 확인 중인 농가 13곳을 포함하면 태양광 시설 설치 농가는 올 상반기에만 모두 40여 곳에 이를 전망이다.

전남도는 조만간 태양광 에너지 발전사업 등 관련 인허가를 완료하고, 하반기 들어 에너지 관리공단의 입찰을 거쳐 태양광 시설을 시공할 방침이다.

사업비는 개소당 1억400만원으로

연리 1%에 10년 상환 조건으로 최대 1억원까지 전남도 농어촌진흥기금에서 융자 지원된다. 영세 사업자의 경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남산농보존재단을 통해 신용보증서 발급도 지원한다.

전남도는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는 장성군 동화면 소재(주)탑산, 농협중앙회, 전남산농보존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에너지농장사업은 FTA 협상결과 고령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효과 산업"이라며 "농어업인들이 이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추가예산 확보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광복기자 kroh@kwangju.co.kr



몸살 앓는 삼림... 아마존 걱정된다

브라질 연방하원인 24일(현지시간) 환경보호의 상징처럼 여겨왔던 아마존 삼림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할 것으로 보여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현재의 삼림법은 아마존 지역 농민들이 전체토지의 80%를 숲으로 보유토록 규제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20%로 대폭 낮추었다.

○연필뉴스

재활용실적 허위업체 EPR제도 참여 제한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24일 "2011년 재활용실적 조사가 시작되는 오는 5월부터 재활용 허위실적 제출업체 제재조치에 따라 허위실적이 적발된 재활용업체는 최대 2년간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 참여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EPR 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은 재활용사업자에게 위탁해 재활용의무

를 이행하는데(2010년 기준 약 520개), 일부 재활용사업자의 경우 재활용실적을 부정정하게 제출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EPR 제도의 대상은 금속캔, 유리병, 종이팩, 합성수지 등 포장재 4종, 타이어, 운할유, 평광등, 전지, (수산불양식용)부자 등 제품 5종이다. 환경부와 공단은 대한 허위실적 제

출기업에 대한 제재조항을 마련했으며, 2011년 재활용실적 조사가 시작되는 오는 5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2011년도 재활용실적(2012년 5~6월 조사)부터 적용하게 된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 금속캔 등 4가지 종류의 포장재와 타이어 등 5가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무생산자)에게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부동산 경매,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ASSET KOREA since 2005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062-236-3400. Includes sections for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금주의 추천 물건', '유동화 자산매각', and '근린시설/원룸'.

현대공인중개사 현대인동상일부동산. Includes sections for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금히 구하는 물건(매매나 임대)', '상무지구 토지매매', and '토지 매도'.

행복한 공인중개사 (세민공인중개사). Includes sections for '상가(매매)', '토지(매매)', and '상무지구 토지매매'.

행복한 공인중개사 (세민공인중개사) (세민공인중개사). Includes sections for '행복한 공인중개사 (세민공인중개사) (세민공인중개사)' and '행복한 공인중개사 (세민공인중개사)'.